

김영록 “압도적인 승리” 장만채 “역전 일궈낼 것”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전 2라운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결선에서 맞붙는 김영록 후보와 장만채 후보는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대세론’ 대 ‘야합론’을 제기하며 거센 공방전을 폈다.

1차 경선에서 1위를 한 김영록 후보는 3위로 탈락한 신정훈 후보의 공개 지지를 끌어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대세론’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월호 참사의 ‘노란빛’ 아픔과 슬픔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유와 의미를 가슴 깊이 헤아리고 지방정부 역시 도민의 생명, 안전,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은 물론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대세를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신 후보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경선 과정에서 나온 신 후보의 전남발전 구상을 받아들이고 상의하면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순천사무소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동지로서 김영록 후보와 함께 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면 자치분권 요구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동부권 상주 제2행정부지사 신설’과 함께 ‘전남관광공사 설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벤처보육센터를 설치해 관광을 전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위로 결선에 진출한 장만채 후보는 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과 함께 결선 투표 연기를 요청하는 등 총공세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장 후보는 결선 진출에 대해 “민주당 입당 이후 보듬어 만에 일궈낸 기적 같은 일”이라며 “정치권의 가득한 공방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의 진정성이 결국 이를 극복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00원의 약속 쿠폰’, ‘100원의 행복밥상’ 등 ‘전남-100원의 행복 사

대세론 vs 야합론 거센 공방전

김, 동부권 상주 제2부지사 신설

장, 100원의 약속쿠폰 공약 제시



김영록 후보



장만채 후보

업’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남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정훈 예비후보의 김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야합론’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의 ARS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조사와 결선투표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김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했다.

장 후보는 “이대로 경선이 치러지면 민주당, 전남도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당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면 김 후보가 사퇴하든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뒤에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음성메시지 발송은 전남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것이며,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드루킹 논란…비장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 서구갑·무안·신안영암 재선거 면접 무슨말 오겠나

“文정부 국정철학 공유…소통창구 되겠다”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에 모든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6일 제8차 회의를 개최, 광주 서구갑과 무안·신안·영암 등 7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12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했다.

공관위는 이날 심사 마감 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을 위주로 개괄적인 평가만 시행했고 단순 및 경선후보자 선정은 추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심사는 지역구별로 7개로 나눠 진행됐으며 공관위원들은 후보자들에게 모두발언 기회를 준 후 후보의 장·단점을 묻는 등 평이한 질문으로 지역구당 15분 정도의 면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갑 면접에서 박해자 후보는 “현재는 광주 국회의원이 전부 야당인데 당선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소통창구가 되겠다”고, 송갑석 후보는 “정의롭고 잘 사는 나라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각각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성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광주 서구갑 후보자에 대한 면접 말미에 “상대 당의 후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신안·영암 면접에서 서삼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부분을 생활밀착형 법률 제 개정을 통해 이뤄내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 서구갑의 경우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애영 전남도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에선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홍준희 변호사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영암·무안·신안은 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국회의원 등이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고 한국당에선 주영순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경제발전 집중토론

광주시장 후보 TV 토론…이용섭 전두환 청와대 근무 이력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이틀 앞두고 16일 열린 예비후보 TV 토론회는 정책과 대안 논의보다는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용섭 후보의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 근무 행적을 따졌고, 이 후보도 강 후보의 재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진흙탕 싸움’을 했다. 양향자 후보는 자신의 공약 소개만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강기정·양향자·이용섭 후보는 16일 광주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지역 방송사 등이 초청토론회를 열었지만 일부 예비후보가 불참했다는 점에서 이번이 사실상 첫 3자 토론인 셈이다.

강 후보는 이 후보의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를 끈질기게 따져 물었지만 정작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도 강 후보의 공격에 하나하나 해명하면서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강 후보가 국회

의원 시절 재산이 급속하게 늘었다고 공격했다.

양 후보는 강·이 후보가 지역 낙후 원인을 과거 정권의 무관심에서만 찾고 있다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 유지와 능력이 없는 후보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강 후보는 이 후보를 ‘전두환의 비서’라고 지칭했고, 감정이 격해진 이 후보는 “청와대에서 전두환씨를 만나 본 적도 없었는데 무슨 비서냐”며 맞받아쳤다.

양 후보는 토론회 내내 자신의 주요 공약인 광주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만 조점을 맞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이 토론 주제로 제시됐으나 정책 토론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는 18~20일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놓고 23~24일 결선투표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3만 유은 동문의 힘!

하나된 유은, 함께하는 동문!

2018 유은 동문

제22회 한마음 대축제

일시

2018. 4. 22 (일) 오전 10시

장소

광주여상고 운동장

주최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
(광주상고, 광주여상,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

주관

광상37회·여상25회 동창회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

www.dongmuni.com / 062)361-2680

광주상고

광주여상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